

의미의 변화

글 **임보선** 겨레말큰사전 편찬부실장

의미는 언어적,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원인 등에 의하여 크든 작든, 빠르든 느리든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 변화의 방향은 대략 확대, 축소, 이동이 있다. 사전 편찬자는 이러한 의미 변화를 잘 읽고 사전 뜻풀이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의미의 확대와 관련한 의미 변화의 몇 예를 아주 소략하게 살펴보면서 뜻풀이의 깊고 더하기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안방, 추첨

‘안방’과 ‘추첨(抽籤)’은 역사적 원인에 의하여 의미가 변화한 단어이다. 즉 ‘안방’은 주택 구조나 주거 생활양식의 변화 등에 의하여, ‘추첨’은 과학의 발달에 의하여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먼저 ‘안방’은 여러 집채와 방이 있는 전통 가옥에서 안채의 중심이며 주택의 제일 안쪽에 있는 가장 폐쇄적인 공간으로 ‘안주인이 거처하는 방’(《표준국어대사전》(웹) 참조)이다. 안주인의 실내 생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여기서 안주인은 집안일 중 안살림을 모두 관리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안방’은 아파트, 양옥 등의 보급으로 말미암은 주택 구조나 주거 생활양식 등의 변화에 의하여 위치나 성격, 거처하는 사람 등이 달라졌다. 일반적으로 ‘집에 딸린 방 가운데 집안의 어른이나 집주인이 거처하는 가장 큰 방¹⁾’을 가리키며, 외부인이 출입하기도 하여 전통적 안방에 비하여 폐쇄성이 많이 약화되었다.

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서재를 가장 큰 방인 **안방** 자리에 잡고 결국 잠만 자는 곳인 침실은 그리 넓을 필요도 밝을 필요도 없을 듯해 현관 왼쪽의 문간방으로 잡았다. 《뿌리깊은나무 : 방과 부엌 꾸미기》 / ㄱ자의 가로 부분에 주인이 기거하는 **안방**이 위치해 있고 세로 부분에 객실들이 들어서 있다. 《조성기 : 불일폭포》 / 지금의 아파트 평면은 예전에 분화된 사랑방이라는 공간이 사라져 버려서 외부 손님이 **안방**까지 침입하는 공간의 혼용을 초래했다. 《김홍식 : 민족건축론》 / 비록 많은 용자를 얻긴 했지만 방이 네 개인 38평 아파트, 우리 부부가 **안방**을 쓰고 큰딸과 작은딸에게 각각 방을 하나씩 주고도 하나가 남는다. 《서윤영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다음으로 ‘추첨(抽籤)’은 글자 그대로 ‘제비를 뽑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전들에서 이러한 풀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학생의 학교 배정 등을 위하여 행하는 ‘컴퓨터 추첨’에서처럼 제비뿐만 아니라 컴퓨터로도 ‘추첨’이 행해진다. 즉 오늘날의 ‘추첨’은 ‘차례나 배정, 당락 등을 정하려고 제비나 컴퓨터 같은 것으로 몇몇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골라 뽑는 행위’를 가리킨다.

1) 《연세 한국어사전》(1998), 《보리 국어사전》(2008),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등에서 이와 유사한 뜻을볼 수 있다.

예

중학교 입학 대상 초등학생들은 3지망까지 학교를 지원하면 컴퓨터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게 된다. 《동아일보사 : 내년 제주 중학 입학 선지원 후추첨 배정, 1996. 6. 11》 / 초대권은 방주시 홈페이지의 댓글 신청자 가운데 컴퓨터로 50퍼센트 무작위 **추첨**하여 배포되었다고 한다. 《구병모 : 방주로 오세요》

단종, 요식행위

‘단종(斷種)’과 ‘요식행위(要式行爲)’는 특수한 집단에서 쓰이던 단어들이지만 일반 사회에서 쓰이게 되면서 그 의미가 일반화하여 확대된 경우이다.

먼저 ‘단종’은 ‘정관이나 자궁관의 일부를 절제하거나 막아서, 또는 생식소에 엑스선을 쬐어 생식 능력을 없애는 행위’([《표준국어대사전》\(웹\) 참조](#))를 가리키는 생물학 용어였다. 그런데 이 말이 일반 사회에 쓰이면서 ‘단종 모델’에서처럼 ‘어떤 제품의 종류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행위²⁾’를 가리키게 되었다.

예

남자의 차는 이미 **단종**이 되고 서울에서 몇 대 남지 않은 차다. 《하성란 : 양파》 / 동생은 그 차를 1994년도에 구입했다. 물론 그때 그 차는 새 차였다. 그런데 그 차종이 작년엔 **단종**되었다. **단종**되고 나니까 부품까지 **단종**시킨 것이다. 《이주향 : 그래도 나는 가볍게 살고 싶다》 / 농심의 경우 신라면 건면으로 신라면 익스텐션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했고 해피라면 등 **단종** 제품들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머니투데이 : 미역국라면·진짜쫄면... ‘갯뚜기 돌풍’ 왜 멈췄나, 2019.9.4》

다음으로 ‘요식행위’는 ‘어음의 발행이나 정관 작성, 증여, 혼인, 입양, 유언 따위와 같이 일정한 규정이나 형식에 따라야 하는 법률 행위’([《표준국어대사전》\(웹\) 참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였다. 그런데 이 말이 아래의 예에서처럼 일반 사회에 쓰이면서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으로 하는 행위’를 가리키게 되었다.

2)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등에서 이와 유사한 뜻을 찾을 수 있다.

예

대학원에 다닐 때 만난 지금의 아내를 데리고 결혼 전에 인사차 집에 들렀을 때도 아버지는 그걸 무슨 **요식행위** 정도로 받아들였다. 《윤대녕 : 새무덤》 /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윤희길 : 날개 또는 수갑》 / 너무 많은 청첩장이 날아오다 보니 경제적 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어느덧 축하의 뜻을 잊은 채 참석 자체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한국일보사 : 결혼식 풍경 (장명수 칼럼), 1996.2.16》

새로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뜻풀이할 때 유념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기존 사전의 뜻풀이를 존중하되 그 잘못을 바로잡거나 모자란 점을 보태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올리지 못하였거나 새로 생겨난 뜻풀이를 더하는 일이다.³⁾ 이때 뜻풀이는 쉽고 정확하며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전 편찬자들은 뜻풀이에 대하여 늘 고민하고 공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⁴⁾

3) 이를 위해 말뭉치(corpus)를 꼼꼼히 검색해야 하며 이에 덧붙여 해당 어휘와 관련된 각종 자료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4) 사전 뜻풀이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전문적인 작업으로 이의 보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



임보선

성균관대에서 음운론/국어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편찬사업회 편찬부실장, 성균관대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국어 어간말 자음군에 대한 통시적 연구」, 「남북 문장부호 규정의 비교와 통일 방안」, 「'문장부호 개정안'(2013)과 '문장부호법'(2010)의 비교」 등이 있다.